

짧은 대표 기도 (2025)

짧은 대표 기도(1): 영혼을 울리는 간결한 표현의 힘

짧은 대표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세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대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는 성도들에게 짧은 대표 기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짧은 대표 기도 예문들을 소개합니다.

주일예배를 위한 짧은 대표 기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어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며,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2): 가정을 위한 축복의 시간

“네 집과 네 가족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예레미야 29:7)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 속에서도 저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를 주소서.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빛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이웃과 사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3): 직장 and 일터에서의 신앙 실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일의 가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제적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매일의 업무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스트레스로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4): 아픔과 치유를 위한 간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치유의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또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병의 위협 앞에 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특별히 장기간 투병 중인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더하셔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5):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중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1-2)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허락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 간 화해와 평화, 특별히 남북한의 관계 회복과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터를 견고히 하며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로 쓰임 받게 하소서.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6):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내가 젊은 자에게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9)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소서.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미디어와 인터넷, AI 시대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지혜롭게 분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교회 안의 청년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대를 효과적으로 섬기고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젊은이들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7): 선교와 전도를 위한 열정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선교의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025년 현재 지정학적 긴장과 종교적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선교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통로를 열어주시고, 디지털 선교와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와 물질과 사람을 통해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8): 감사와 찬양의 고백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4)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기쁨의 순간에는 함께 기뻐하시고, 슬픔과 고난 중에는 위로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9):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10): 결단과 헌신의 약속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주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결단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변함없는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의 핵심은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표현에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자세로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상 속에서든 위에 소개한 짧은 대표 기도를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보세요. 더 많은 예배 자료와 기도문은 주일예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